나를 보내사

(이사야 61:1-7)

응답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며, 현장을 정복할 수 있고, 인생이 살아나서 성경처럼 작품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난 약속을 본문에 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인도받았구나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당한 문제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자리를 잡아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정신 문제가 왔는데, 영적 문제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을 바로 알면 이 문제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피가 뱀의 대가리를 깼으며, 다른 것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을 누리는 길이 되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고백하고, 누리면 영적 문제는 해결됩니다. 언약을 선포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예배당에 모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담고 지키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마음을 담고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하십니다. 언약을 잡고 예배를 지속하는 자에 무너지지 않을 사탄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이 많으나, 그리스도의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다른 사람,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닌,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전문적으로 아는 자이며, 그 언약을 가지고 사람을 건지는 자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사람을 건져본 경험이 있는 자를 필요로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세월을 지내며, 그리스도의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며,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길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걸 누리며, 매일 고백하는 것. 그러면 인생에 이 언약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잡는 것으로 내 할 일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으니 내가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인간의 힘과 마음으로는 믿음이 계속 깨지기 때문에 매일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길을 알고,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세 가지를 변하지 않고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6차 집중 훈련을 '내 인생을 바꿀 말씀 한 마디'라는 언약을 잡고 잘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 한 마디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주실 것입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뱀의 대가리를 깨고,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을 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신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 다 하셨습니다.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1. 나를 보내사

본문 1절 중간에 나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에 보면, 사탄을 죽이고, 정복하는 그날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3절 '무릇 시온(하나님의 땅)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회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전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약속입니다. 이렇게 될 조건을 1절 앞 부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것이 기름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나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려야 합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말할 필요 없습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포로가 되고, 자유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답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였다 해도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언약으로 잡아야 합니다. 이것은 원죄를 지은 인간에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복음(Good News)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예배에 대하여 어떠한지 점검해야 합니다. 4절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적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

이니라' 7절에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라고 하셨습니다. 포로 된 이후에 이런 정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했고, 죽는다고 이야기했으나 계속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렘넌트 7명을 포함한 성경의 인물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삶과 축복을 누리며,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예배 때는 답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이렇게 되었다는 기록을 성경에 해두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보다 세월이 걸리며,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오히려 눈이 계속 열립니다. 요셉, 모세, 다윗, 바울의 공통점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정확한 복음 이해'입니다. 복음 없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요셉과 모세는 부모로부터 복음을 받고, 다윗은 시와 찬양으로 복음을 누리며, 바울은 하나님께서 직접 전달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은 계속 복음을 누렸고, 그들에게 언약이 되었습니다. 사역할 때도 복음을 설명하며, 복음을 답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답으로 꽂히게 되면 그 다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복음을 답으로 전달하지 못하는 건 복음이 자신에게 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답이라고 확신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을 가지고, 문제에 도전했을 때,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기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혈이 아닌 내 기도 제목이 1순위라면 그것은 종교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이 1순위 언약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모두 '세계 복음화의 사람'이었으며, 전도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한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수시로 말씀을 받는 자들'이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현장에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패턴이었고, 모두에게 동일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3가지는 응답을 누리고, 본문과 같은 삶을 사는데 필요한 말씀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하는 기초입니다. 기초이면서 결론입니다. 아무리 연약해도 이 세 가지를 붙잡으면 성경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기에 복음을 진심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소원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전도하고, 선교하길 원한다는 것을 붙잡게 됩니다. 복음 누리고, 예배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누려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받은 자는 세계 복음화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복음을 내 안에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인생의 결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 요셉과 형들의 차이, 모세와 광야에서 불평하던 자들의 차이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바울과 베드로의 차이도 이 세 가지입니다. 행위의 차이가 아닌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언약이 다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결과가 인생 차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선 누구일까? 내 주위에는 누구일까? 그 사람에게 가서 말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포로 된 자도 찾아 포럼을 함으로 자유를 전달하고, 어디에든 갇힌 자에게 해방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 축복이 임할 것인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자유함과 해방을 체험한 자, 복음으로 하나님과 뜻이 통한 자가 이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면 자유함이 옵니다. 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자는 성장하고 발전하고,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이 이렇다고 설명합니다. 겨자씨가 나무가 되고, 새가 앉을 만큼 성장하는 것. 계속 성장하고, 깊어지고, 크게 근본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입니다. 자유하고, 놓임을 받고, 누리고, 승리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건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소원 성취를 위해 매주 말씀을 받고,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현장에서 회복의 말씀을 전하며, 정리가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배를 가볍게 드리지만 않으면 이 속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은 예배 통해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듣는 것을 지속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 들어온 말씀이 나를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말씀 받으며,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반드시 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답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만 구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누리며, 증거를 보면 그리스도 보혈의 언약에 확실한 자 됩니다. 그게 더 깊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완전히 통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미 복음 있으니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 인생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